

일본의 양계업

산란계

계란 안전성 홍보라벨 사용 시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어도 유통중인 계란은 안전하다는 내용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홍보라벨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부터 소비자 등에게 계란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의 경우 발생하더라도 소문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일본란업협회가 2003년 말 농림수산성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작성한 것이다.

라벨의 내용은 표면에는 「소비자 여러분에게」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 가 발생하였을 때의 닭·계란의 처분이나 이동제한 등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조류에의 전염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계란은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이면에는 「계란의 안전성에 대하여」 계란을 섭취하는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식품안전 위원회 의견을 기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절대 발생해서도 안 되고 혹시 발생하여도 계란유통에 영향을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11월 개정으로 이동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장이라도 바이러스 분리 시험에서 농장의 청정성이 확인된다면, 계란만은 이동제한구역내외의 청정성이 확인된 GP센터나 액란·가공시설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계명신문 발췌).

난각을 강화하는 첨가제 발매

가금용 70종의 미네랄을 균형 있게 함유한 혼합사료 「아조마이드」를 발매하였다. 아조마이드는 화산활동에 의해 지표면에 있는 태고의 해양퇴적물, 미네랄원소, 해초, 작은 새우, 조류 등의 해양생물들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미국의 각주에서 유기재배 자재로도 승인된 안전한 식품생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료에의 첨가 효과는 (1) 기호성이 좋아지고, (2) 가축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균형 있게 공급하며, (3) 가금·가축의 대사기능을 갖추어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4) 생육·생산성을 향상시킨다, (5) 사료중의 곰팡이 독소를 강력하게 흡착하여 배설함으로서 가축에게 독소의 영향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미시시피주립 대학에서의 시험에서는 산란계에 사용한다면 난각의 강화가 기대된다고 하였고, 이미 일본에서 사용 중인 양계장에서는 난각의 강화뿐만이 아니고 난각 표면에서 광택이 난다는 보고가 있었다(계명신문 발췌).

400만수용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준비

농림수산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400만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비축하기로 하였다. 비축용 백신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불활성의 노바리스 IAinac이다. 새롭게 비축하는 400만수용 백신은 국가검정을 거쳐 3월중에는 동물검역소에 비축되게 되면 지금까지의 320만수용을 합한 720만수용(2회 접종시 360만수용)이 된다. 생산자 단체는 더 나아가 양계밀집지역이나 대군 농가를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방적 사용도 요망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G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닭고기 생산부분에 SQF 인증취득

식품이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 생산·처리되어 취급되는 것을 보증하는 국제규격 「SQF」의 인증취득 하였다 고 화이트팜(주) 미야자끼(宮崎)사업소에서 발표하였다. SQF1000(1차 생산자 대상) 인증취득은 일본 화이트팜(주) 미야자끼사업소의 생산부인 브로일러 농장이고, SQF2000(식품제조 및 유통업자 대상)을 취득한 것은 미야자끼사업소의 식품공장인 계육처리가공공장이다.

SQF는 Safe Quality Food의 첫 글자로 「안전한 고품질의 식품」이라는 의미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HACCP와 품질관리 규격인 ISO9000을 함께 한 시스템으로서 (1) 위험분석에 의한 위해인자 저감, (2) 작업기준·작업순서의 표준화에 의한 품질안정과 고품질의 실현, (3) 작업자교육에 의한 안전·품질의식 고양, (4) 시스템의 유지관리감시에 의한 계속적·발전적 시스템의 정착 등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안심과 신뢰를 주는 것이다(계명신문 발췌).

개선된 게이트형 차량소독 장치

요시다엘시스(주)는 게이트형 소독장치(SDG-S1형)에 측면 제트형 소독장치(SDS-S1형)를 부가한 「게이트형 소독장치 플러스」(SDGS형)를 발매하였다. 지금까지의 게이트형 소독장치는 차량의 차륜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측면 젯트형을 부가한 것으로, 농장입구에 설치하여 차량에 의해 옮겨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병원균의 농장 내 침입을 방지하였다.

게이트형 소독장치 플러스의 주요한 특징은 (1) 대형차에서 소형차까지 자동센서 또는 스위치를 누려 전진시키는 것만으로, (2) 아래쪽에서부터 분사되어 차량 아래쪽을 깨끗하게 소독할 수 있고, (3) 소독액은 자동주입희석장치에 의해 약 100대1의 비율로 자동희석도기 때문에 커다란 소독 탱크가 불필요하고, (4) 매분 약 25?32L의 대용량 소독액을 분사, (5) 보조용 소독관이 부착되어 있어 구석구석까지 수동으로 소독이 가능하고, (6) 분무본체와 배관부분에 겨울철용 히타가 부착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동결의 걱정이 없고, (7) 센서로 자동분무(옵션)가 가능하다(계명신문 발췌).

보수력이 향상된 신발 소독매트

(주)아즈마·코포레이션은 바닥에 소독매트를 깔아 출입시 신발을 소독하는 「아즈마매트 수퍼」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신발용 소독매트는 신발바닥의 소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트로서 식품공장, 의료기관, 양계장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새롭게 발매한 대형 「아즈마매트 수퍼」는 흡수매트 2매를 사용하여 보수력을 더욱 높이고 시트자체를 고품질 재질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신발의 바닥을 소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트에 소독액을 담가놓아 소독조 대신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신발이 더러워지거나 소독액을 묻히기 어려운 점이 있어 소독을 피하거나 적절한 소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즈마매트」는 출입시 매트 상부를 걷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신발바닥이 소독하여 소독율이 높고 소독액에 묻히는 순간에 소독액이 뛰어 나가는 것도 적어진다. 취급도 내부의 흡수매트에 소독액을 부어 적셔 놓는 것으로 끝나 매트에 소독액을 부어 놓는 소독조 방식보다 간단하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 운반이 편리하고 이동 시에도 소독액이 넘치는 경우가 드물다. 청소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경사지게 걸어 말려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계명신문 발췌).